

CK산업, 서울 신사옥에 미니랩 아프트서비스센터 개설

올해로 창업 11주년을 맞는 미니랩 전문제조메이커, CK산업은 최근 원활한 고객서비스를 위해 동사 신사옥에 아프트서비스센터를 개설했다.

미니랩의 해외수출증대와 신기종 개발에 따른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CK산업은 서울 외에도 부산, 대구, 광주, 대전지역에 미니랩 전시장 및 아프트서비스센터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조만간에는 전국 각지역에도 아프트서비스센터를 개설할 예

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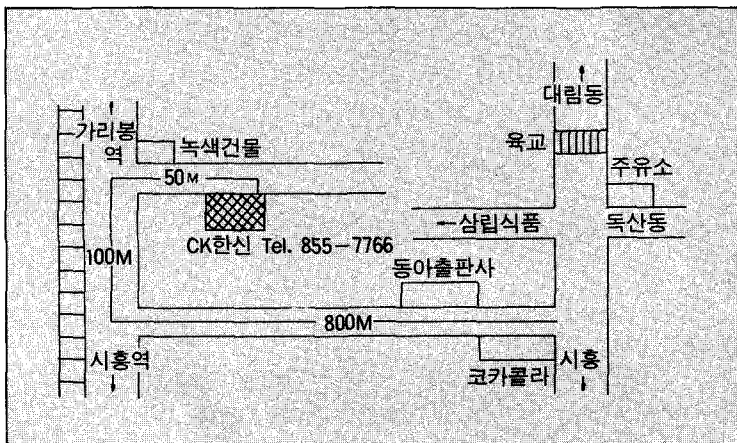
한국후지필름(주) '94서울국제 종합유선방송전시회에 FUJIX Presentation 카메라 Fv-7000 등 첨단 정보영상 제품 출품

한국후지필름(주)는 지난 7월 5일부터 8일까지 KOEX 3층 대서양관에서 개최된 '94서울국제종합유선방송전시회(CATV Show)에 후지방송용 테이프와 FUJIX Presentation FV-7000 등을 출품했다.

금년 초부터 자기재료과를 신설, 이분야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고 또한 정보영상시스템을 도입해 국내시장에 보급하는 등 사진산업에서 뿐만 아니라 영상과 정보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영상 정보산업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한국후지필름이 '94서울국제종합유선방송전시회에 출품한 품목은 BE-TACAM SP, BETACAM OXIDE, M II 등 방송용테이프 9개 품목과 네가티브필름, 리버설필름, 기타 사진원고 등을

CK산업 전국 아프트서비스센터 연락망

지 역	전 화	팩시밀리
본사	02 - 855 - 7766	02 - 855 - 7178
부산지점	051 - 557 - 2245	051 - 557 - 2247
대구지점	053 - 953 - 6633	053 - 953 - 0833
광주지점	062 - 525 - 9055	062 - 525 - 7984
대전지점	042 - 534 - 6527	042 - 534 - 6527



▲ CK산업 서울 아프트서비스센터 위치도



▲ '94서울국제종합유선방송전시회에 참가한 한국후지필름(주)의 전시장 전경

모니터와 연결하여 보여주는 FUJIX Presentation 카메라 FV-7000 등 첨단 정보영상 제품이다.

특히 이번 '94서울국제종합유선방송전시회와 관련, 그동안 일반에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방송용 카메라렌즈, 방송용 테이프 등 후지필름의 많은 제품들이 국내 방송사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다가올 CATV 시대에는 그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한국후지필름은 기대하고 있다.

■ 국내 카메라 수출 70% 증가

—상반기 6천2백만불 내수도 20% 이상 늘어 5백50억—

카메라 수출과 내수판매가 모두 늘어나고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삼성항공

현대전자등 국내카메라업체의 상반기중 카메라수출은 6천2백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천6백만달러보다 70%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반기중 내수판매는 지난해보다 20%이상 늘어난 5백50억원으로 조사됐다.

삼성항공은 상반기중 6천만달러어치의 카메라를 수출, 단일업체로는 처음으로 올해 카메라수출이 1억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회사는 2배중 3배중등 줌계열카메라를 5천1백만달러어치 판매하는 등 중급기종수출을 확대하고있다. 이회사는 지난해 상반기에 3천만달러어치의 카메라를 수출했다.

삼성항공은 또 내수시장에서 2백80억원상당의 카메라를 판매, 지난해보다 15%이상 늘었다. 이회사는 4배줌카메라

와 3배슬림줌카메라가 나오는 하반기부터 판매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있다.

현대전자는 지난해상반기보다 50%가까이 늘어난 90억원어치를 내수시장에서 판매했다. 이회사는 올해초 방문판매 위주였던 판매조직을 총판체제로 전환, 판매망을 확대한데 이어 4배줌카메라와 패션카메라 등을 잇따라 시판, 매출액을 늘리고 있다. 이회사는 지난 1·4분기중 월평균 10억원상당의 카메라를 판매했으나 판매망이 갖춰진 2·4분기부터는 월판매량이 2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수출의 경우 일본 올림푸스社로의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공급이 올해부터 중단돼 지난해보다 60%이상 줄어든 2백만달러에 그쳤다.

일본니콘카메라를 국내생산하고 있는 아남산업은 지난해상반기보다 25%늘어난 75억원어치를 판매했다. 이회사는 F801 F601 FM2 등 SLR(일안리플렉스)카메라를 판매, 국내 고급카메라시장의 73%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 국내 카메라메이커들 유통구조 개선에 박차

—방문판매 위주에서 총판체제로 전환—

국내 카메라업체들이 외국

메이커의 본격적인 국내시장 진출에 대비 유통구조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항공은 올들어 유통구조를 총판체제로 적극 전환하고 있으며, 아남산업, 동원정밀 등 카메라업체들도 총판체제로의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삼성항공은 우루과이라운드(Ur)논의가 한창 진행되던 지난해부터 방문판매 위주에서 총판체제로 유통구조를 바꾸기 시작, 현재 15개의 총판점을 두고 있다.

삼성항공은 지난해 금성사의 카메라사업 포기가 방문판매 위주의 유통방식에 지나치게 의존한데 따른 것이라고 결론짓고 총판 중심의 유통구조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이 회사는 현재 15개 총판을 통해 월 3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이는 전체매출의 절반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향후 그비중이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남산업도 유통망을 총판체제로 강화할 예정이다.

아남산업은 이와 함께 대형매장을 확보, 아남니콘카메라만의 전문매장을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본격적인 카메라사업 참여를 선언한 동원정밀은 계속적인 신제품 개발을 통해 연말까지 6개 모델로 확대하고

유통조직도 총판체제 위주로 강화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 삼성·현대 카메라 내수판매 본격 경쟁

삼성항공과 현대전자의 카메라내수판매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현대전자가 지난해 금성카메라사업 인수 이후 올해부터 카메라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삼성항공의 독주체제였던 국내카메라업계 판도가 삼성·현대 경쟁체제로 바뀌고 있다.

현대전자는 올들어 5월까지 월평균 20여억원어치의 카메라를 판매,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매출액이 80%이상 늘어났다. 이외사는 지난해 6월 금성카메라모델 인수를 계기로 판매기종을 확대, 지난해 12~13%수준이었던 내수시장점유율이 최근 20%넘어서고 있다. 현대전자는 올들어 4배줌카메라(IS2000)와 패선행 자동카메라를 출시했으며 오는 8월 2배줌카메라의 개량모델을 내놓을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현대전자는 이와함께 카메라판매확대를 위해 유통망을 강화, 지난해 90여개였던 대리점 및 특약점판매조직을 올들어 1백50여개로 늘렸다. 이 회사는 올해말까지 판매조직을 2

백여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올해 초 잡혀있던 카메라광고 예산을 두배이상으로 늘려 매월 3억 여원을 광고비로 투입하고 있다.

현대전자는 판매기종확대와 유통망강화, 광고확대 등에 힘입어 올해 매출목표인 2백30억원을 초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항공은 금성사의 카메라사업 포기이후 내수시장점유율이 60%선으로 올랐으나 수출증가로 인한 내수물량부족으로 시장점유율이 최근 50%로 낮아졌다. 이회사는 최근 생산라인 풀가동으로 월 15만대를 생산하고있으나 바이어들의 주문이 계속돼 내수판매물량을 늘이지 못하고있다. 삼성항공은 또 3배슬림줌카메라와 4배줌카메라 등 올해 개발한 신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수출주문이 밀려있어 내수시장에는 물건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삼성항공은 그러나 3배 슬림줌 및 4배줌카메라가 내수시장에서 판매되는 하반기부터 시장점유율이 다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삼성카메라 수출 큰 폭으로 증가

그동안 해외시장에서 외면 당해온 국산 카메라가 엔高

일본의 카메라업계는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미 3~4년 전부터 저가형 카메라의 생산라인을 동남아 지역으로 대폭 이전해왔으나 고급기술 이전을 기피하다가 최근 엔고현상이 지속되자 진퇴양난의 상태에 빠져…….

호기를 활용, 일본제품이 차지하고 있던 시장을 급속히 잠식해가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국내 카메라업계를 대표하면서 국산화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삼성항공의 카메라수출이 울들어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

삼성항공은 올해 전반기 매출이 내수판매의 경우 지난해와 비슷한 2백80억원에 그쳤으나 수출은 지난해보다 88% 증가한 4백70억원을 기록하는 호조를 보였다.

삼성항공의 수출이 이처럼 대폭 증가한 것은 세계 카메라 시장의 규모가 커진 것에 기인하기보다는 일본 카메라업계의 생산구조 조정과정과 엔고 영향으로 일본업계가 그간 유지해 온 시장의 일부를 삼성항공이 잠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세계 카메라시장을 지배해 온 일본 카메라업계는 그동안

캠코더를 비롯해 보다 진일보한 응용제품 투자에 주력, AF 계열카메라나 고급기종인 SLR(一眼리플렉스)계열카메라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있으며 특히 엔고의 영향으로 가격경쟁력마저 떨어진 상태.

일본업계는 가격경쟁력확보를 위해 이미 3~4년전부터 저가형 카메라의 생산라인을 동남아지역으로 대폭 이전해왔으나 고급기술 이전을 기피하다가 최근 엔고현상이 지속되자 진퇴양난의 상태에 빠진 것이다.

반면 삼성항공은 그동안 콤팩트형 3배줌 자동카메라와 4배줌 자동카메라 등 신제품개발에 주력해 왔고 해외유명 카메라전시회 등에 꾸준히 참가해 상품 인지도를 높이는 노력을 전개해온 것도 수출증가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여기에 올해들어 세계최대 시장인 미국에서의 영업망 강

화를 통해 시장개척에 적극 나선 것도 수출증가에 한몫한 것으로 삼성측은 분석하고 있다.

국내카메라 수출이 이처럼 크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국내 기업이 기초광학분야 투자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장기적으로 볼때 최대 경쟁국인 일본 업계와 대등한 경쟁을 벌이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삼성항공 중국에 카메라 합작공장 가동

-천진조상기공사와 연 1백만대 생산-

삼성항공(대표李大遠)이 국내 카메라 업체로는 처음으로 中國 天津에 합작회사인 天津三星光電子有限公司를 설립, 해외 현지 생산에 들어갔다.

삼성항공과 天津照相機公司가 각각 1천1백만달러와 9백만달러를 투자해 설립한 이 합작공장은 연간 1백만대의 카메라를 생산, 30%는 중국시장에 공급하고 나머지 70%는 제3국에 삼성상표로 수출할 계획이다.

이 합작회사는 삼성항공이 기술 설비 자재 등을 공급하고 天津照相機公司是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를 지급하는 한편 현지 생산인력 충원을 담당한다.

삼성항공은 이번 중국 합작 공장 건설을 계기로 연간 5백만대 이상의 카메라 생산체제를 갖추게 됐다.

■ 삼성항공, 신바람 독서 아카데미 개설

삼성항공은 지난 8월 한 달 동안 회사임직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제 1기 신바람독서 아카데미를 개설했다. 삼성항공은 교육대상자들에게 교재 및 리포트양식 학습안내서 등을 지급하고 청한건설링그룹에서 파견나온 전문지도위원들의 평가를 받도록했다. 독서 아카데미 과정은 신경영, 과학기술, 세계와, 자기관리 등 11개분야였다.

■ 삼성항공 비디오도어폰 사업 중단, 광학사업 다각화 계속 추진키로

삼성항공이 비디오도어폰 사업을 포기한다.

삼성항공은 광학사업다각화를 위해 지난해 비디오도어폰 사업에 참여, 4선식 비디오폰 「명동이」를 생산했으나 그룹 계열사인 삼성전자에서 비디오도어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다 사업성도 없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삼성항공은 그러나 미니랩

(사진현상기) CC(폐쇄회로) TV카메라사업 등을 확대, 광학사업다각화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 삼성항공 카메라공장 증설

-3백억원 투입 연산 2백만대 규모로, 내년 3월 완공-

삼성항공이 창원카메라공장을 연산 2백만대규모로 증설한다.

삼성항공은 최근 해외바이어들의 카메라주문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연간 1백20만대 생산규모인 창원 제1공장을 2백만대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이를위해 연건평 2천평규모의 건물을 증축하고 최신기계설비를 도입하는 등 모두 3백억원을 투자, 95년 3월 공장증설을 끝낼 계획이다.

삼성항공은 이에따라 中國天津의 1백만대생산규모 공장을 포함, 연간 3백만대의 카메라생산체제를 갖추게됐다.

삼성항공은 증설되는 창원 공장에서 3배줌 4배줌카메라 등 줌계열카메라와 고급렌즈 등 초정밀부품을 생산하고 中國 현지공장에서는 AF(자동초점)카메라등 저가기종을 생산할 계획이다.

이회사는 최근 3배줌카메라(퍼지줌1050)1개 기종으로 수출1백만대를 달성하는등 수출

이 급증하고있어 국내의 생산망을 확대하고 있다.

■ 삼성항공, 외국전문인력 대폭 늘려

-러시아 등서 50여명 추가 초빙-

삼성항공이 신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외국전문인력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

삼성항공은 공장자동화(FA)·전용기·광전자·항공 등 첨단산업분야에 대한 핵심원천기술을 확보, 사업화하기 위해 외국전문인력을 현재 1백여명 수준에서 50%이상 늘리고 선진국과의 공동개발체제를 조기에 구축하기로 했다.

항공분야의 경우 산업용 가스터빈엔진 개발을 위해 28명의 러시아연구원을 초빙하는 등 약 50여명의 해외 전문인력을 활용해 왔는데 향후 생산기술 및 조립공정설계분야에 대해 전문인력의 영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엔지니어링 및 생산기술 분야에 걸쳐 20여명의 일본·미국엔지니어를 확보한 FA분야도 외국전문인력 활용을 레이저개발분야로 확대하고 칩마운터 및 반도체장비 개발에 대해서는 일본 및 러시아와 공동개발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생산기술·개발등에 30여명

의 해외연구인력을 확보한 광전자분야도 취약분야인 렌즈 기술·카메라설계 및 생산기술에 대해 외국 전문인력을 총원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삼성항공은 지난 4월 러시아 MIPT공대에 첨단기술연구소를 설립, 항공우주·광전자·산업기기분야에서 러시아가 보유한 첨단연구기술의 국내이전 및 공동개발체제를 구축했었다.

동원정밀, 카메라사업 대폭 강화

(주)동원정밀(대표 崔汝奎)이 카메라사업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

최근 관련사업계에 따르면 동원정밀은 이달말부터 기존의 「에스코트-Z」모델을 소형 슬림화한 콤팩트형 카메라 「에스코트-미니」를 본격 시판기로 했다.

또 보급형 기종인 「PC-100」도 개발, 이달말부터 시판하고 「DP-1000」「DP-2000」 등의 AF(오토포커스)기종도 내달부터 선보일 계획이다.

동원은 이밖에도 일본 펜탁스사로부터 一眼리플렉스(SLR)기종을 추가도입해 본격적인 카메라사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 회사는 카메라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대대적인



올해 1회용 카메라의 전체시장은 지난해 1백 20만대보다 16%정도 성장한 1백40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들 불법제조품이 정품시장 수요를 잠식해 후지필름·현대칼라 등 정품제조업체의 매출이 오히려 감소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인사개편을 통해 내부조직을 정비, 카메라사업의 관리요원을 2배로 늘렸다.

사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일회용카메라 품질테스트 결과 발표

시중에 유통중인 일회용카메라 가운데 일부제품의 품질이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金仁浩)은 최근 피서철을 맞아 사용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 일회용카메라 10종을 수거, 해상력등 14항목에 걸친 품질 테스트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 시험 결과에 따르면 코닥사(모델명 : 판플래시)제품은 플래시를 작동시켰을 때 중심과 주변의 광량차가 나타났으며 코니카사와 피크닉사 제품은 한글표시가 전혀 없어

일회용카메라 시판제품 10개중 3개가 비정품

손쉽고 간편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1회용카메라가 최근 인기를 끌자 불법제조품이 등장, 활개치고 있어 건전시장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올해 1회용 카메라의 전체시장은 지난해 1백20만대보다 16%정도 성장한 1백40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들 불법제조품이 정품시장수요를 잠식해 후지필름·현대칼라 등 정품제조업체의 매출이 오히려 감소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1회용 카메라 케이스는 보통 플라스틱으로 제작돼 있어 일반 가정집에서도 암실만 갖추면 쉽게 재활용할 수 있다. 바

로 이점에 착안해 영세업체들이 1회용 카메라 재활용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1회용 카메라의 원리는 비교적 간단하다. 플라스틱 렌즈가 부착된 케이스에 ISO400의 고감도 필름을 결합시키기만 하면 완성된다.

1회용 카메라 케이스는 한국후지필름이나 한국코닥 등 국내 1회용카메라 판매사에서 대부분 회수해 간다.

따라서 이들 업체는 시중의 일반 현상소에서 웃돈을 주고 구입하고 있으나 급증하는 국내수요에 맞추지 못하자 소규모 오피상을 통해 일본 등지로부터 수입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영세업체들이 생산하는 1회용 카메라는 그 실체를 추적하기가 힘들며 몇개 업체가 얼마나 생산하는지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태지만 업계에서는 전체 1회용 카메라시장의 약 20~30%를 이들 제품이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 영세업체가 생산하는 1회용 카메라는 한국후지필름이나 한국코닥등의 제품을 모방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래서 정확한 제품명을 모르거나 제조회사를 꼼꼼히 살펴보지 않은 소비자들은 이를 후지나 코닥의 제품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얘기다.



영세업체들이 생산하는 1회용 카메라는 그 실체를 추정하기가 힘들며 몇개 업체가 얼마나 생산하는지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태지만 업계에서는 전체 1회용 카메라시장의 약 20~30%를 이들 제품이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품 1회용 카메라를 판매하는 회사중에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곳은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것이나 일본에서 판매되는 것 모두 일본에서 생산하는 한국후지필름으로 예상되고 있다.

즉 케이스는 같고 포장지에 새겨진 글씨만 다를 뿐이어서 일부 영세업체는 이를 이용해 재활용된 제품이 마치 후지필름사의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제품에 흠이 있는 것을 발견한 소비자들이 한국후지필름에 찾아가 피해보상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재활용된 1회용 카메라는 품질에도 문제가 많다. 1회용 카메라에는 주로 ISO 400의 고감도 필름이 사용되기 때문

에 사진을 확대할 경우 표면이 거칠어지는 단점이 있다. 그런데 영세업체들은 단가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저질의 ISO 400필름을 사용함으로써 더욱 사진의 질이 떨어진다.

일부 소비자들은 사진이 현상되지 않거나 빛이 들어가는 등 제품에 문제가 발생해 이를 호소하기도 하나 피해구제 단체에서는 사안 자체가 사소하고 제조사를 밝히기도 힘들어 이에 대한 피해구제를 제대로 못하는 실정이다.

1회용 카메라는 유통구조가 무척 복잡하다. 대부분 1회용 카메라를 취급하고 있으며 슈퍼마켓이나 잡화상에서도 판매하고 있다. 특히 재활용된 1회용 카메라의 경우는 주로 지방의 소도시나 유향지를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어 1회용 카메라에 대한 인식이 낮은 소비자들만이 싼 맛에 구입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활용된 1회용 카메라의 가격은 정품의 3분의2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현재 1회용 카메라시장은 해를 거듭할 수록 규모가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에 따라 재활용된 1회용 카메라의 비중도 증가할 것이라 판단하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현재 재활용된 1회용카메라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후지필름 등의 판매사에서는 소비

자들이自社제품과 유사품을 혼동하지않도록 자체적으로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정부차원에서 근본적으로 1회용 카메라 케이스의 무분별한 수입을 규제하거나 법적인 제재수단을 강구해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는 것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산업폐기물인 케이스를 수입하는 별난(?) 나라로 인식될 것이 분명하다.

■ 영세업체들 1회용카메라 불법 제조, 판매활개

최근 1회용 카메라의 수요 증가에 따라 일부영세업체들이 1회용 카메라를 불법으로 제조·판매하고 있어 정품 제조업체의 판매에 타격을 주고 있다.

최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1회용 카메라의 전체시장은 지난해의 1백20만대에 비해 16% 정도 성장한 1백40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한국후지필름 현대칼라 등 1회용 카메라를 판매하는 회사들의 올상반기 매출실적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감소해 불법 제조업체들의 매출이 상대적으로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후지필름의 경우 자사가 판매하고 있는 「퀵스냅」과

겉모양이 똑 같은 「큐타임」 「미라클」 「피크닉」등 유사제품이 범람해 올 상반기중 전년 동기대비 20% 줄어든 30만대 판매에 그쳤다.

이와 함께 현대칼라 아그파 코니카등 정품판매업체들도 유사품의 판매 증가로 전반적인 수요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와 비슷한 판매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국내제품의 경우 ISO400필름을 사용한 1회용 카메라만이 판매되고 있고 일본에서는 최근 ISO-800의 고감도 필름을 사용한 1회용 카메라가 시판되고 있는데 최근들어 국내에서도 ISO-800을 사용한 케이스가 자주 발견돼 이들 영세업체가 상당수의 케이스를 일본에서 수입해 1회용카메라를 제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복사기 수출 주력품목으로 부상

-2천년엔 세계시장 8% 점유 낙관-

복사기가 올해를 기점으로 주요 수출품으로 등장할 것이 확실하다.

정부가 올초 복사기를 비롯한 주요 OA기기를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의 수출품목으로 앞당겨 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주요 사무기기의 수출 산업화 촉진대책」이 발표된 이후 복사기는 이미 상반기중에 지난해 수출물량을 웃도는 3만2천여 대를 수출해 이런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상공자원부는 최근 국내 복사기 산업이 엔高 영향과 업계의 독자모델 개발에 힘입어 수출이 크게 늘고 있고 특히 OEM방식에서 자체브랜드에 의한 수출구조로의 전환단계에 있어 조금만 뒷받침 해주면 수년내 충분히 세계 2위의 복사기 수출국으로 올라설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 연장선에서 「수출산업화 촉진대책」도 수립했던 것이다.

그동안 내수에 주력함으로써 이렇다할 수출실적을 기록하지 못했던 신도리코 코리아 제록스 롯데캐논등 OA전문3사는 올상반기중 이미 지난해 전체 수출물량을 크게 넘어선 3만2천여대의 복사기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역시 엔高에 힘입은 이들업체들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제경쟁력이 크게 향상된 독자개발모델을 앞세워 수출시장을 적극 공략했던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분당 15~30매 사이의 복사속도를 지닌 중·저속기 부문에 있어 국산제품은 세계 최고수준의 국제경쟁력을 갖

추고 있어 지난해 하반기 이후 이들 제품에 대한 해외바이어들의 주문이 계속 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추세라면 국내 복사기 산업은 수년내 수출이 내수 규모를 훨씬 넘어서는 것은 물론 세계시장에서 국산제품이 차지하는 비중도 일본 다음으로 높아질 것이 확실하다.

실제로 올해 국내 복사기시장은 내수가 10%안팎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수출은 1백%이상의 폭발적인 신장세가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수출신장세에 힘입어 올해 복사기 생산규모도 전년동비대비 35%의 높은 신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업체별로는 신도리코가 하반기 이후 중·저속기를 앞세워 수출시장을 적극 공략한결과 올해 들어 6월말 현재까지 1만5천여대의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신도리코는 주문이 계속 쇠도하고 있어 하반기에는 이보다 배이상 늘어난 3만4천여대를, 그리고 내년에도 6만여대 수출실적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코리아제록스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 분당 22~26매 사이의 복사속도를 지닌 모델을 자체설계, 수출시장을 적극 공략한데 힘입어 올 상반기중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4배이상 늘어난 5천4백여대의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코리아제록스는 특히 제록스그룹내 지역별 업체중 중속기부문에 있어 자체개발모델이 현재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동남아·아프리카·유럽등 타지역업체들로부터의 수출주문이 계속 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국내 복사기 수출을 주도해 온 롯데캐논의 경우 올해 들어 수출보다 내수중심의 영업을 펼친 결과 상반기중 지난해와 비슷한 1만1천8백여대의 수출실적을 기록하는데 그쳤으나 하반기이후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롯데캐논의 주력수출모델도 역시 분당 15~30매 안팎의 중·저속기로 복사기 전문 3사는 앞으로도 이 시장에 승부를 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세계 복사기시장은 지난 92년 4백27만대 규모중 고속기·중속기·저속기등 아날로그시장은 물론 디지털복사기등 전 분야에서 강세를 보인 일본이 64.5%의 높은 점유율을 차지한 반면 일부중·저속기 중심의 아날로그제품에 주력하고 있는 한국은 불과 2.8%의 점유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한국은 오는 95년경엔

세계 시장점유율이 3.7%로 증가한데 이어 2천년엔 8.1%수준까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일본의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 국내 복사기 3사 수출 快調

—상반기 3만2천대 수출—

국산 복사기의 상반기중 수출물량이 이미 전년도 물량을 넘어섰다.

최근 관련업체에 따르면 신도리코·코리아제록스·롯데캐논 등 OA전문3사는 올 상반기중 3만2천여대의 복사기를 수출해 이미 지난해 수출물량 3만여대보다 2천대 정도를 더 많이 수출했고 지금도 주문이 쇠도해 공장을 1백% 가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엔고와 국내업체들의 다양한 수출전략이 적중했기 때문인데, 분당 15~30매 사이의 중·저속기부문에 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일본에 뒤이은 세계2위의 복사기 수출국으로 부상이 기대되고 있다.

신도리코(대표 馬石亨)는 지난해까지 수출이 부진했으나 올해 들어 6월말 현재까지 1만5천여대의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신도리코는 올 연말까지 주문이 밀려 있어 하반기에 3만4

신도리코는 올 연말까지 주문이 밀려있어 하반기에 3만4천여대를, 그리고 내년에도 7만여대를 수출할 계획 코리아제록스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 자체개발 모델을 앞세워 수출시장을 적극 공략하는데 힘입어 올 상반기중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4배이상 늘어난 5천4백여대의 수출실적을 기록 롯데 캐논은 지난해와 비슷한 1만1천8백여대의 수출 실적을 기록

천여대를, 그리고 내년에도 7만여대를 수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리아제록스(대표 文大源)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 자체개발 모델을 앞세워 수출시장을 적극 공략한 데 힘입어 올 상반기중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4배이상 늘어난 5천4백여대의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롯데캐논(대표 金正麟)은 지난해와 비슷한 1만1천8백여대의 수출실적을 기록했으나 하반기 이후 점차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

저가종류의 사무기기 對日 수출 급증

저가종류 팩시밀리 복사기 등의 對日수출이 크게늘고있다.

이는 일본사무기기업체들이 엔高현상으로 감열방식의 팩시밀리등 저가형제품의 생산을 잇따라 중단, 제품공급선을

한국업체들로 바꾸고 있는데 따른것이다.

최근업체에 따르면 팩시밀리전문업체인 화승전자는 최근 일본무라다사와 연간 20만대의 팩시밀리를 수출키로 계약을 체결했다. 화승전자는 대화형LCD(액정표시장치)화면을 채택한 초소형팩시밀리(모델명 까팩스HS-20)를 개발, 무라다사에 공급키로 했다.

무라다사는 일본의 감열방식팩시밀리 전문생산업체로 세계시장을 주도해왔으나 엔高로 인한 가격경쟁력약화로 저가제품생산을 포기 화승전자로부터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으로 제품을 공급받기로했다.

화승전자는 또 유럽 미국등에 대한 수출도 추진, 올해 35만 여대를 내보낼 계획이다, 이회사는 이미 독일로부터 까팩스HS-20에 대한 국가규격을 획득했으며 영국에서는 국가 규격심의절차를 밟고있다.

신도리코는 일본리코사에 팩시밀리 및 복사기수출을 크게 늘리고있다.

이회사는 올들어 5월까지 감열방식팩시밀리 1만5천여대를 수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늘렸다. 또 복사기의 경우 분당 15장을 복사할수 있는 제품(모델명NT2040)을 지난 5월부터 수출, 지난해보다 70%늘어난 7만여대를 올해 수출할 계획이다.

신도리코는 올해 팩시밀리 1백10여억원어치와 복사기 3백60여억원어치를 일본에 수출키로했다.

일본리코사는 엔高로 중저가형 사무기기제품의 제조원가가 높아지면서 신도리코로부터 OEM방식을 통해 공급받는 제품수를 늘리고 있으며 앞으로 중저가제품에 대한 개발업무도 신도리코에 맡길 계획이다.

금성사는 GF760등 감열방식팩시밀리를 일본에 수출하기 위해 일본사무기기업체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우통신도 보급형 팩시밀리「띠아모」수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신도리코, 용지걸림해소 복사기 NT4000시리즈, 보름만에 1천대 판매 돌풍

신도리코가 개발한 종이걸

림 자동제거 복사기가 요즘 복사기업계에 돌풍을 몰고와 화제다.

연중 최대 비수기라는 여름철을 맞아 급증하는 수요를 충당하느라 연일 땀을 흘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1일부터 본격 시판에 들어간 종이걸림(잼) 자동제거 복사기 「NT 4000시리즈」는 출시된지 보름만에 1천여대를 돌파하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기록을 세웠다.

이에따라 신도리코측은 가마솥 불벌터위속에 생산라인을 1백% 가동하는등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신도리코측에 따르면 지난 7월1일 NT 4020, NT4030, NT4040등 3개 기종이 출시되자마자 전국 3백여 대리점과 지사및 영업소등을 통해 주문이 쇄도, 시판 보름만에 1천여대가 판매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신도리코의 신제품 생산 능력은 월 1천7백여대로 주 3일의 야간근무를 통해 생산라인을 가동해도 월 2천대 이상 생산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올들어 수출주문이 폭증, 현재 수출물량만 월 6천여대를 생산하고 있어 당분간 내수물량을 늘릴 수 없다는게 신도리코측의 설명이다.

더욱이 이번달이 비수기에 막 접어든 7월인 점을 감안해

볼때 9월이후 성수기에 접어들면 월 평균 주문량이 3천여대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NT4000시리즈」의 품귀사태마저 우려되고 있다.

신도리코의 3백여 대리점과 영업소들도 현재 본사를 대상으로 「NT4000시리즈」의 차질 없는 공급을 요청하고 있다.

이처럼 「NT 4000시리즈」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판매고를 기록할 수 있는 비결은 과연 무엇인가.

이에 대해 일선관계자들은 『이번 신제품은 우선 품질이 좋고 기능이 다양하면서도 동급기종대비 가격이 저렴한등 좋은 제품이 갖춰야할 박자를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NT4000시리즈」는 화상, 애프터서비스, 편리한 기능, 내구성등 국내 소비자들이 원하는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소비지지향의 제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종이걸림을 기계본체가 감지하여 제거해주는 「퍼지 잼 컨트롤」기능을 채용, 그동안 복사기 사용자들의 최대 불만사항이었던 용지걸림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다.

또 10키 줌기증을 비롯, 그림자 소거기능, 비밀보호기능, 자동절전 기능, 50~2백% 줌

기능등 기존 고속기종에서나 볼 수 있는 각종 첨단편리기능이 채용돼 있다.

이제품은 △일정크기 이상의 부품에 대한 재질표시를 통한 자원재활용 △오존발생억제를 위한 오존 필터의 사용 △예열기능을 이용하여 전력낭비를 극소화한 본격적인 환경대응 복사기라는 점과 KR-II 유기감광체(OPC)드럼이 장착돼 있어 내구성이 기존제품보다 약 30% 이상 향상돼 유지보수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신도리코는 현재 분당 18매에서 26매의 복사속도를 지닌 중·저속기에 이어 앞으로 분당 40매 이상의 고속기에 퍼지잼컨트롤기능을 채용, 제품선택의 폭을 넓히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 코리아제록스 고속복사기 '비바체 550' 9월 시판

코리아제록스(대표 文大源)가 분당 55장을 복사할 수 있는 「비바체 550」을 새로 발표, 오는 9월부터 시판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비바체 550」은 터치식 액정디스플레이(LCD)화면을 채용, 조작이 간편하고 자동스태플기능으로 후처리 작업도 자동처리할 수 있고 단색컬러 및 편집기능으로 사용자의 뜻

에 따라 창조적 복사업무를 실현할 수 있다.

이 제품은 분당 51매의 초고속 자동양면 원고이송장치(DADF)를 장착, 많은 매수의 원고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고 최초복사시간을 3·1초로 단축, 원고당 1매씩의 복사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또 고감도·고내구성의 OPC드럼과 IMB현상방식으로 고속·고선명 복사를 실현, 얼룩없는 선명한 블랙톤, 가는선의 섬세한 표현이 가능하다.

■ 코리아제록스 LPS(레이저프린팅시스템)사업 대폭 강화

코리아제록스(대표 文大源)가 대형 레이저프린팅시스템(LPS)사업을 크게 강화한다.

코리아제록스는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대형 고품위 LBP시스템 시장공략을 위해 분당 20~1백35매 사이의 출력속도와 첨단기능을 갖춘 A3용대형레이저프린팅시스템 신제품 3종을 내놓고 시장공략에 나선다고 최근 밝혔다.

이가운데 이달들어 시판되고 있는 날장지형·초고속 자동양면 LBP시스템인 「제록스 4660LPS」는 고해상도 레이저 기술과 제록스 제로그래픽기술의 접목으로 6백DPI 고해상



국립공업기술원은 최근 기존 레이저 측정범위인 30cm를 3배이상 능가, 1백cm까지 측정이 가능하고 0.5 μ m(1백만분의 1m)까지 정밀측정이 가능한 레이저 정밀높이 측정장치 개발... 이는 비접촉 측정방식으로 기존의 높이 마이크로미터나 하이트게이지 방식보다 측정시간을 8분의 1수준으로 단축



도를 구현했다.

특히 분당 1백35매의 세계 최고속출력으로 생산성 극대화를 꾀할 수 있는 제품으로 최대 급지량이 7천7백매로 대량 고속 자동양면출력이 가능하다. 판매가격은 3억6천만원 선이다.

또 이번주부터 판매될 「제록스 4480LPS」는 고속 2색 프린팅을 실현한 3백 DPI 해상도의 원패스투컬러 프린팅 시스템으로 분당 50매의 고속출력을 지원하며 최대 급지량이 4천3백매다. 소비자가격은 2억7천만원 선.

이와 함께 「제록스 4230LPS」는 수직·수평의 네트워크에 대응, 다양한 접속이 가능하면서 사무실 설치공간을 고려한 콤팩트한 디자인에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 중소량 고품위 출력시스템으로 분당 20매

출력속도와 3백 DPI해상도를 지원한다. 오는 12월께 출시될 예정이다.

■ 국립공업기술원, 레이저 높이 측정기 개발

레이저를 이용한 높이 측정장치가 개발됐다.

국립공업기술원(원장 金裕采)은 최근 기존 레이저 측정범위인 30cm를 3배이상 능가, 1백cm까지 측정이 가능하고 0.5 μ m(1백만분의 1m)까지 정밀 측정이 가능한 레이저 정밀높이측정장치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레이저 정밀높이측정장치는 非접촉 측정방식으로 기존의 높이 마이크로미터나 하이트게이지 방식보다 측정시간을 8분의 1수준으로 단축시켰고 접촉에 의한

오차를 제거해 측정정밀도를 크게 향상시켰다.

정밀높이측정장치는 항공기 부품 초정밀기계부품 등 첨단 산업용 정밀부품의 측정공정에서의 초정밀부품가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 삼성종합기술원, 특수 광섬유 국내 첫 개발
-광신호 1만배 이상 증폭, 연간 1백20만불 수입대체 기대-

차세대 광신호 증폭장치의 핵심부품으로 사용되는 특수 광섬유(EDF)가 개발됐다.

삼성종합기술원(대표 河聖漢)은 삼성전자와 공동으로 회도류 원소인 어비움을 광섬유 코어 부분에 첨가시켜 광증폭용으로 사용되는 특수광섬유를 독자기술로 국내최초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특수 광섬유는 광신호를 수백배에서 1만배 이상까지 증폭시킬 수 있고 잡음지수가 양자역학 한계치인 3dB(데시벨)에 근접하는 우수한 특성을 갖고 있다고 기술원 측은 설명했다.

세계 특수 광섬유의 시장가격은 m당 수백달러를 호가하는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英國의 파이버코어사, 미국의 AT & T사, 일본의 후지쿠라사 등

몇몇 선진회사들만이 생산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특수광섬유 국산화가 가능해 연간 1백20만달러 상당의 수입대체 효과가 기대된다.

특수 광섬유가 사용되는 광증폭기(EDFA)는 기존의 3R 중계기가 40km 정도의 증계거리를 갖는 반면 광증폭기는 1백km 이상까지 증계할 수 있고 光CATV망에 사용될 경우 광신호를 수천배 이상 증폭시켜 주는 광전력증폭기로 필수적인 제품이다.

삼성종합기술원은 삼성전자 구미공장에서 특수광섬유를 생산할 예정이며 특수 광섬유의 개발로 국내 광전송시스템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KIST, 정보전자연구부서상희박사팀 세계 5번째로 청색 발광다이오드 개발

레이저프린터, 光통신기기 등 첨단정보표시기기에 활용되는 청색 발광다이오드(LED)가 美·日·英·獨에 이어 세계 5번째로 개발됐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원장 金殷泳)정보전자 연구부 徐相熙박사는 2년간의 연구끝에 순청색을 띠는 양자우물구조의 아연셀레늄(Zn, Se)계 청색LED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徐박사는 이 결과를 최근 KIST가 개최하는 G7프로젝트(선도기술개발사업) 정보·전자·에너지 첨단 소재개발사업 중간연구발표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徐박사는 연구과정에서 최첨단 화합물반도체 제조장치인 MBE(분자선 박막결정)성장장치를 자체적으로 설계·개발했으며 이를 이용해 청색 LED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청색LED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CDP(컴팩트디스크 플레이어) LDP(레이저디스크 플레이어) 등의 光메모리기에 필수 반도체소자로 쓰이고 있는 레이저다이오드(LD)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

발광다이오드(LED)는 표시소자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반도체소자로 지금까지 적색 녹색 황색의 3가지가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 고휘도의 청색LED개발이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청색LED는 지금까지 실리콘카본화합물 갈륨질 소화합물의 형태로 개발되었으나 밝기가 흐려서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아연 셀레늄화합물쪽으로 개발방향을 돌리고 있다.

徐박사는 이번 청색LED의 개발로 연간 2천만달러의 수입대체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히

고 있다.

한전기술연구원, 광온도 측정시스템 첫 개발

광학현상을 이용해 온도를 측정하는 「光온도측정시스템」이 국내 처음 개발돼 발전소 계측제어분야의 각종 신호를 光센서로 측정하고 처리정보를 光케이블로 전송하는 光계측제어시대를 크게 앞당기게 됐다.

최근 韓電기술연구원(원장 申圭植) 정보통신기술연구팀(팀장 南基哲)은 大口經 光케이블 끝에 처리된 형광물질에 빛을 투사하면 다른 파장의 빛으로 형광되는데 이때 형광된 빛의 殘光시간을 이용해 온도를 측정하는 시스템을 금성전선과 공동으로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기술연구팀이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2년여의 연구 끝에 개발한 이 시스템은 측정포인트수가 40점, 측정온도 범위가 섭씨 10~2백20도, 측정길이가 최대 1백m까지 가능한 것으로 실험결과 밝혀졌다.

이 시스템은 특히 높은 절연성·전자 무유도성 원격계측성·세경 및 경량 등의 특성을 갖고 있어 기존의 전기식 온도계로 측정이 곤란했던 고전압·대전류·고주파 전자계 등



한국과학기술연구원·정보전자연구부 서상희 박사는 2년간의 연구끝에 순청색을 띠는 양자우물구조의 아연셀레늄계 청색LED를 개발하는데 성공... 이로인해 연간 2천만달러의 수입대체효과 기대



에서 직접적인 온도측정이 가능해 발전소 및 변전소 등 특수환경에서 매우 높은 신뢰도로 온도계측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개발된 시스템은 실증실험을 마치고 현재 韓電 서천화력발전소의 보일러에 연료를 공급하는 給炭管의 微粉炭 온도측정용으로 설치돼 급관탄 보일러의 운전상태 감시용시스템으로 운용되고 있다.

기술대학 금년내 본격 운영 전망

그동안 관계부처간의 의견대립으로 지연돼 온 기술대학이 금년내에 시범개교를 거쳐 늦어도 97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전망이다.

최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난항을 겪어온 설립방식에 대해 부처간의 의

견수렴을 거쳐 별도의 법제정 없이 교육법체계내에서 기술대학의 취지와 내용이 유사한 현행의 개방대학설치운영 관련규정 개정을 통해 기술대학을 설립, 운영키로 했다.

이에따라 상공부는 교육법에 의한 개방대학 형태의 기술대학을 설립한다는 방침을 확정하고 금년중에 생산기술연구원부설 기술교육센터의 증개축을 실시, 전기전자·기계·화학등 수요가 많은 학과를 중심으로 5백명 정원의 韓國産業技術大學(가칭)으로 시범개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하여 확정키로한 공업및에너지 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정부출연등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현재의 공업계 개방대학이 기술대학의 모형을 수용할 경우 실험·실습기자재 확충등 지원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상공부는 이같은 준비작업을 거쳐 97년에 산업기술대학을 본격 설립할 계획이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술대학 설립작업단을 구성하여 운영키로 했다.

다음달부터 활동에 들어갈 기술대학 설립작업단은 △산업현장 근무경력자 위주의 교원자격요건 보완 △설립기준 완화 △연구·실습기자재의 기준 강화 △별도 교육장의 운

영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방대학 설치운영 관련규정의 주요 개정방향(안)을 마련하게 된다.

금년도 정부예산에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설립하게 될 기술대학은 △산업현장 근무경력자위주의 교육실시 △산업체, 정부투자기관, 경제및 업종별 단체등 다양한 주체에 의한 설립 △자율적, 신축적학사운영 △교수임용의 탄력적 운영등의 특징을 갖추게 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 93년 신경제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산업기술대학을 설립키로 하고 산업기술대학법제정등 준비작업을 진행해 왔으나 설립방식을 둘러싸고 교육부등 관계부처와의 의견이 엇갈려 개교에 진통을 겪어 왔다.

솔로몬 자판기, 복사기, TV 등 전자제품에 장착사용 가능한 무인 서비스시스템 출시

자판기시스템전문회사 솔로몬자판기(대표 李哲漢)가 일반전자제품에 다양한 형태로 적용할 수 있는 無人서비스시스템을 개발, 본격시판에 나선다.

코인메커니즘을 비롯한 자판기내의 전자제어부 기술을 응용한 이 제품은 복사기 또는 세탁기 등에 장착될 경우

동전의 투입에 따라 해당서비스를 자동실행해 주는 제어시스템이다.

특히 이 無人서비스시스템은 부착되는 전자제품의 특성에 따라 인터페이스 신호부분만 조정하면 팩시밀리·텔레비전·세차기·휴대폰등 다양한 종류의 제품에 적용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솔로몬자판기는 현재 코리아제록스사와 서울시청 등으로부터 상당물량을 수주해놓고 있으며 대학 및 국·공립도서관을 비롯해 병원·세차장·빨래방 등을 대상으로 이 시스템의 본격적인 판매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이회사는 현재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코인메커니즘등 주요부품을 특정상품별로 국산화 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후지필름(주), 수퍼 200애독자 퀴즈 대잔치 실시

한국후지필름(주)는 '94히로시마 아시안게임을 맞아 스포츠조선이 실시하는 "94히로시마 아시안게임 응원단 선발을 위한 수퍼 200애독자 퀴즈 대잔치"에 협찬을 했다.

이번 애독자 퀴즈대잔치는 7월27일부터 9월22일까지 스포츠조선 지면을 통해 퀴즈가 출제된다. 퀴즈마감은 9월22

일(소인 유효)까지이며, 9월 24일 스포츠조선 지면을 통해 발표된다.

이번 애독자 퀴즈대잔치는 정답자 가운데 1천명을 추첨하여 후지수퍼 200상 30명에게 일본 여행권(항공, 숙박권 포함), 대상 3명에게 486컴퓨터 각1대, 금상 50명에게 무선호출기 각 1대, 은상 300명에게 롯데월드 자유이용권 각 2매, 동상 617명에게 후지 수퍼 200필름 5통 씩을 각각 수여하게 된다.

아남산업(주) 광학사업본부 구로동 사옥에 소비자보호실 개설

아남산업(주) 광학사업본부에서는 최근 강남지역의 소비자들을 위해 태평로 아파터서비스센터에 이어 구로동 사옥에 소비자보호실(전화, 861-4898)을 개설, 대소비자 서비스업무를 시작했다.

한편, 아남산업 광학 사업본부에서는 금번 소비자보호실 개설을 계기로 동사방문 소비자들에게 자사제품의 소개, 설명 등 카메라 전반에 걸쳐 소비자 만족에 최선을 다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아남산업에서는 금번 구로동 사옥에 소비자보호실 개설을 계기로 소비자들이 접수한 카메라에 대해 바르고

완벽한 애프터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도리코, '환경복사기' NT 2040 출시

『이젠, 복사기도 「환경복사기」시대!』

신도리코가 지난 7월 환경보호기능을 크게 강화한 「NT2040」을 국내 시장에 첫선을 보이며 내건 슬로건이다.

「NT 2040」은 신도리코 기술진이 일본 리코社로부터 설계의뢰를 받아 개발해 낸 본격 환경대응 복사기 1호기.

개량된 오존필터를 사용하여 인체에 해로운 오존발생을 줄인 바이오기능과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재활용할 수 있는 각종 부품에 재질표시를 하여 재활용도를 높였으며 예열기능을 채택, 예열시 온도를 4단계까지 조절할 수 있도록 절전기능을 보장하는등 말 그대로의 그린 복사기인 셈이다.

따라서 환경문제를 무역과 연계시킨 그린라운드(GR)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NT 2040」이 있는 신도리코에게 있어서는 남의 일일 뿐이다.

실제로 「NT 2040」이 지난 4월부터 미국, 일본 등 전세계 48개국에 수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해 주는 좋은 예라 하겠다.



▲아남산업(주) 광학사업본부에서는 최근 구로동 사옥에 소비자보호실을 개설했다.

특히 「NT 2040」은 일명 「IBIS(따오기)」프로젝트에 의해 전세계 수출을 목표로 개발된 수출핵기종으로 UL FCC CSA TUV FEMKO등 세계 우수 안전규격을 다수 획득했다.

무엇보다도 「NT 2040」은 환경보호 항목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세계 복사기 선두업체인 일본의 대다수 업체들도 획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독일의 「뉴밤(New Bam)」마크를 당당히 획득한 것은 국내 복사기산업의 쾌거라 할 수 있겠다.

「NT 2040」은 이같은 국제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신도리코가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한 KR-II OPC(유기광광체)드럼이 장착돼 있어 드럼의 내구력이 30%정도 향상된 것이 장점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NT 2040」은 이같은 높은 품질 외에 다양한 첨단기능을 갖추고 있어 동급기종중 경쟁력이 가장 높은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선 이제품은 복사기 시스템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20개의 비밀번호를 개인별 혹은 부서별로 고유번호를 할당하여 사용을 제한 또는 일정기간동안 복사매수관리를 할 수 있다.

또 용지의 규격에 상관없이 원고상에 있는 도형등의 치수를 희망하는 치수로 바꾸고자 할때 원고치수와 희망치수를 mm로 입력시키기만 하면 복사배율이 자동으로 계산돼 복사되는 치수변배(자동배율계산)기능을 지니고 있다.

분당 15매를 연속복사하며 50~2백%까지 자유자재로 축소·확대복사할 수 있는 이제

품은 이밖에 긴급복사기능, 자동복사기능등 동급기종에서는 찾아 볼수 없는 첨단기능을 고루 갖추고 있다.

신도리코는 올가을이 지나면서 「NT 2040」이 점차 인기를 확보, 늦어도 내년봄께엔 베스트셀러기종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내심 기대하고 있다.

우리기술로 설계·개발·생산해 낸 「NT 2040」은 현재 세계 48개국에 수출돼 크게 호평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버헤드프로젝터(OHP)에 LCD패널 연결한 시청각 기자재 각광

최근 오버헤드프로젝터(OHP)에 LCD패널을 연결, 시청각 효과를 높여주는 제품이 등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엄격한 의미에서 LCD와 OHP는 상관관계가 없는 제품이다. LCD는 컴퓨터나 계산기의 표시창으로 사용되어 왔고, OHP는 학교 기업 등의 시청각 기자재로 활용되고 있는 제품이다.

이처럼 다른 용도로 활용되어 오던 두 제품이 접목을 이루게 된 것은 OHP전용 필름처럼 빛을 투과하는 LCD패널이 등장, 더욱 깨끗하고 생생한 시청각 교육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OHP는 몇년 전까지만 해도 기업체 관공서 軍 등의 교육기자재로 활용됐으나 최근 각급 학교를 중심으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교육부가 「학교 교구설비 기준령」에 의거, 각급학교로 하여금 6학년당 1대의 OHP를 구비토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몇년간 OHP시장은 연평균 20~30%의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그런데 최근들어 OHP에 OHP전용 필름대신 LCD패널을 올려놓고 이를 컴퓨터나 오디오·비디오에 연결해 컴퓨터 자료와 교육용 비디오를 시청하는 등 더욱 생생한 시청각 교육을 하고 있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추세는 OHP제조사의 LCD패널 수입이 늘고 있는 것과 LCD패널 전문수입업자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도 증명되는데 앞으로도 LCD패널을 취급하는 업체들이 급속히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 LCD패널을 취급하는 업체는 컴버스엔지니어링을 비롯, 한국사프 인포코리아 한국 3M 등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OHP와 관련된 주변기기 시장이 지난해에 비해 약 15%정도 증가했는데 특히 LCD패널의 경우 정확한 집계는 없지만 성장률이

30% 이상 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LCD패널에 채용되는 제품이 대부분 9인치 이상의 TFT LCD로 소량 일본으로부터 수입되고 있어 향후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해 이의 국산화가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내무부 지방세법 개정안 마련, 취득세 등 지방세 대폭 감면

-첨단기술산업과 비도시형 업종도 세제감면 혜택 가능-

내년부터 대도시에 들어서는 전화 통신업등 기간통신산업과 도·소매업 물류시설, 첨단기술산업에 대해 취득세 등 등록세 재산세등 각종 세금이 대폭 감면된다.

또 국가공단과 지방공단에 입주하는 인쇄업 양말·모자 제조업등 도시형업종에 대해서도 비도시형업종과 마찬가지로 세제감면혜택이 주어진다.

내무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의 의결과 국회의 동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경쟁력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대도시내의 중소형공장에 대

한 각종 지방세제지원을 확대키로 하고 이들공장의 비업무용토지 판정유예기간을 1년씩 연장해주시기로 했다.

또 현재 과세싯가 표준액 7천만원을 초과하는 고급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증과제도와 자동차세 연간상한액(3백만원)을 폐지,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를 징수하는 한편 외국 리스회사의 리스물건이 국내에 수입될 경우 취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국내리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농어촌지역의 세제지원방안으로 상속농지와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경감해주고 자영어민의 어업권·선박취득에 대한 취득세부과도 종전의 50%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주거용건물에 대한 재산세세율체계를 30~40평형 규모의 중산층 소유주택에 유리하도록 정비, 누진구조를 조정하고 기본세율의 적용범위도 1천만원 이하에서 1천2백만원 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재산세증과대상인 고급주택의 범위도 현행 과표 1천5백만원 이상의 주택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완화조정되고 과표5백만원 이하의 소규모농어촌주택은 별장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와함께 현재 정부산하 각종 비영리단체와 공공법인, 각

종 정책지원사업 등에 폭넓게 적용되고 있는 지방세 비과세·감면대상이 크게 축소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종교 학교 사회복지시설을 제외한 모든 분야가 과세로 전환된다.

한국과학기술아카데미

출범

- 理 · 工學 등 5개 전문부서로 구성 -

한국과학기술아카데미가 최근 成樂正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장, 李相洙 설립추진위원장 등 모두 54명의 과학기술계 원로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기인대회를 갖고 창립절차에 들어갔다.

과학기술계를 이끌어 온 원로와 석학들로 구성될 이 아카데미는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쳐져 있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획기적인 도약을 위해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자문 평가, 학술연구 진작 등의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창립발기 선언문에서 「日帝의 침탈과 전쟁으로 폐쇄화된 과학기술을 되살리기 위해 지난 40년간 노력한 결과 여러가지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아직까지 일부 분야는 기초적인 자료조차 갖추지 못할 정도로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제2의 도약을 통해 선진국 수준에 다가설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

이라고 밝혔다.

이 아카데미는 英國의 왕립협회, 프랑스의 과학한림원, 美國의 국립과학 한림원 등 오랜 역사를 지닌 선진국의 관련 단체와 같이 순수민간학술단체로 경비를 자체 조달함으로써 자율성을 확보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가 지난 90년부터 설립을 추진해온 이 아카데미는 정회원과 원로회원으로 구성되며 이학공학 농수산 보건 정책연구부 등 5개 전문부서와 사무국을 둘 계획이다.

한국광학회 학회지 제5권 2호 발행

- 23편 논문게재 -

한국광학회(회장, 김웅)에서는 최근 한국광학회지(제5권 2호)를 발행했다.

동학회지에는 홀로그래피 Head-up Display시스템의 설계 및 제작, Photoresist 응용법을 이용한 미세렌즈 행렬 제작 등이 게재되었다.

모로코, 밀수 카메라시장 활황

모로코는 1인당 국민소득이 1천弗에 불과해 일반공산품, 특히 전자제품이나 광학제품에 대한 구매력이 매우 낮은

한국광학회지 제5권 제2호 게재 논문

논문명	저자
위상이동법을 이용한 3차원 형상측정법의 연구	오동석, 남기봉
양방향 증밀리기 간섭계를 이용한 긴 곡률반경 측정	이윤우, 조현모, 이인원
Micro lens array 설계	홍경희
열상장비용 직병렬주사광학계	김창우, 김현숙, 홍석민, 김재기
반점 간섭무늬 위상단면도의 잠음계기	조재완, 홍석경, 백성훈, 김철중
홀로그래피 Head-Up Display 시스템의 설계 및 제작	정만호, 송재봉, 한영수, 유연석
이중 패브리-페로 간섭계에 대한 분광학적 분석방법	이석목, George I. Stegeman
진폭과 위상에 따른 어두운 솔리톤의 진행특성에 대한 전산시뮬	김광훈, 윤선현, 문희중, 임용식, 이재형, 장준성
2모드 색소레이저 출력의 Switching과 First-Passage-Time(FPT) 분포	박구동, 신종태, 김태수
자외선과 가시광선 극초단 펄스 실험의 균속도 차이에 의한 시간 분해능 및 공간 겹침의 제한	김성규
세준위 모델원자에서 2광자 광여기 현상	김영철, 성도현, 김기식
Rhodamine 560을 이용한 Rhodamine 6G 색소 레이저의 출력 증가	장원권, 이민희
표면 제2고조파 발생을 이용한 색소 Rd6G박막층의 손상 분석	유대혁, 고춘수, 임용식, 이재형, 장준성
가시광 다이오드 레이저의 스펙트럼 및 주입-잠금 특성분석	남병호, 박기수, 권진혁
공진기 반사율과 펌프 파워에 따른 어븀 광섬유 레이저의 특성	박서연, 이학규, 김경현, 이동한
광 귀환에 의한 erbium첨가 광섬유 증폭기의 이득과 ASE 스펙트럼 안정화	김호삼, 박희갑
Photoresist 용융법을 이용한 미세렌즈 행렬 제작	주영구, 송현우, 이용희, 송석호
광섬유 복합 소자를 위한 열확장코어 광섬유	김진하, 김병윤
표면 플라즈몬 광섬유 편광기의 제작 및 특성 조사	김진하, 김병윤
Manchester Coded DPSK WIDK 통신 시스템에서 FWM의 영향	이호준
후치 증폭기 손실을 갖는 광섬유 증폭기를 사용한 장거리 광통신 시스템의 성능평가	이무도, 이호준, 이화용
고속 광통신용 PIN-전치증폭기 수광모듈 제작 및 특성 측정	박찬용, 박경현, 강승구, 송민규, 김홍만, 황인덕, 박형무, 윤태열, 심창섭, 유지범, 정종민
2.5Gbps 광통신용 InGaAs Separate Absorption Grading multiplication(SAGM) Avalanche Photodiode의 제작 및 특성분석	유지범, 박찬용, 박경현, 강승구, 송민규, 오대곤, 박종대, 김홍만, 황인덕, 박형무, 윤태열, 이창희, 심창섭, 광병화

편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소유욕구는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오랜전부터 이러한 시장특성에 부합되는 유통구조가 형성돼 왔다. 즉 국내생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부과되는 80% 수준의 높은 관세율 부담을 피하기 위해 모로코 북부 스페인령 자유무역항인 세우타와 메릴리아를 통한 밀수가 이러한 제품의 주요 공급선이 돼 왔다.

모로코경제의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지하경제는 그 뿌리가 깊고 이에 종사하는 인구가 엄청난데다가 이를 근절할 경우에 야기될 수 있는 사회적, 정치적 불안요인으로 인해 이러한 불법 유통은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다. 이 제품은 정식 수입의 경우에 부과되는 관세부담에 훨씬 못미치는 10% 정도의 비용부담으로 모로코내로 반입돼 정식 수입품보다 월등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공급되고 있다.

카메라는 휴대반입이 매우 용이하기 때문에 가격이 높고 고급품의 구매력을 가진 계층의 소비자들은 대부분 해외에서 이를 구입하고, 해외여행의 기회가 없는 중산층이하 소비자들만이 국내에서 제품을 구입하는 관계로 유통되는 카메

라의 70% 이상은 35mm 카메라중에서도 가장 단순하고 가격이 저렴한 것들이다.

모로코의 카메라 보유율은 성인 3명당 1대꼴로 판매량의 약 50%가 여름휴가철 직전에 집중돼 있는 것이 특징이며, 카메라의 유통은 일반 전자제품 등과 마찬가지로 세우타나 메릴리아시장에 정통한 인도계 상인들이 상권을 쥐고 있다. 주로 카사블랑카의 시내중심가에 5평 내외의 소형 부티크에 비디오, 카메라, 시계, 안경, 깝연기구 등을 팔고 있는 이들 인도계 상인들은 북부로부터 수입시 1회 평균 100~200대의 카메라를 반입해 하루 평균 5대, 여름철엔 20대 정도까지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급품의 대량유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계 유명브랜드들의 정식 독점 수입업자는 없고, 수입이 된다고 대부분 엄청난 언더밸류로 수입을 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수입통계는 거의 의미가 없는 실정이다.

모로코 카메라시장의 약 80%를 차지하는 약 110弗 이하의 35mm 카메라는 최근 중국산 Wizen, 중국에서 조립된 Pentax, 일본의 Toma, 이탈리아의 Ocean 등이다. 이러한 브랜드들도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시장에 나오는 것이 아니

고 세우타나 메릴리아의 재고 상태에 따라 2~3개월 집중적으로 대량 반입돼 판매되기도 하다가 6개월 이상씩 제품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기가 있는 등 전형적인 암거래시장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위와 같은 브랜드 이외에 세계유수의 모든 브랜드의 카메라들이 유통되고 있으나 저가품 이외에는 그다지 거래가 활발치 못한 상황이다.

한국산 카메라는 아직 모로코시장에서는 생소한 편이지만 수입업자들은 세우타 등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35mm 한국산의 구입만 가능하다면 모로코내의 판매는 보장할 수 있다는 일치된 의견을 보였으며 중국산 또는 대만산과 동일한 수준의 가격일 경우에만 경쟁력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정식 수입된 카메라는 기본 관세 37.5%에 수입부가세와 부가가치세를 합해 총 78.5%의 관세가 부과된다.

■ 삼성카메라 일본제품 제치고 '유럽콤팩트상' 등 2개 획득

국산카메라가 일본제품을 제치고 세계 최우수카메라로 선정됐다.

삼성항공은 최근 콤팩트4배줌카메라인 ECX-1(국내모델명 FX-4)이 세계적으로 가

8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한 종합지원센터는 과장급인 센터총괄 책임자를 포함, 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각각 고유의 담당업무가 지정돼 창구별로 업무를 처리한다.

모든 업무지원은 사내고객의 요청을 받는 즉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고, 직원들은 전화 한 통화로 각종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종합지원센터는 사원가족 경조금, 사원자녀장학금지급,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대출지원, 주택조합 안내, 콘도예약 등 사원 개개인의 복리증진에 관계된 업무를 전담한다.

또 여권비자, 민원서류 발급, 문서수발등 인사관리 등으로 업무의 폭을 보다 다양화할 예정이다.

과제중심형 인력 풀(Pool)제를 도입해 업계의 관심을 모았던 삼성항공은 이번 종합지원센터 운영으로 직원들이 보다 창의적이고 기획적인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회사를 위기상황에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종합지원센터의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金在鏞과장(33)은 『종합지원센터는 관리업무 가운데 기업의 영속성 유지에 위

해 반드시 있어야 할 핵심업무와 사원 개개인의 삶의 향상을 위한 지원제도 운영업무를 통합해 이를 전문화·정예화함으로써 사원들이 위기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업무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조직』이라고 설명한다.

한국코닥, 포토 CD 연내 미국서 도입
-포토 CD에는 약 1백여장의 고해상도 필름이미지 저장 가능-

국내에서도 앨범없이 콤팩트디스크에 사진을 보관할 수 있는 포토(Photo)CD시대가 열린다.

두산그룹 투자회사인 한국코닥은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포토CD시스템기술을 갖고 있는 미국 코닥사 제품을 정부의 허가를 받는대로 올해안에 들여올 계획을 세웠다.

포토CD는 음악이 녹음되어 있는 오디오CD처럼 콤팩트디스크의 한종류다. 소비자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일반 카메라를 이용, 사진을 찍고 필름을 포토CD시스템을 갖춘 현상소에 맡기면 현상소에서는 오디오CD와 같은 콤팩트디스크에 필름에 담긴 이미지를 저장하게 된다. 소비자는 포토CD를 가져와 TV나 컴퓨터화면을 통해 볼 수 있다. 국내 가

전업체들이 판매하고 있는 대화형 콤팩트디스크(CD-1)로도 CD를 볼 수 있다. 코닥이 개발한 포토CD에는 약 1백여장의 고해상도 필름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다. 저해상도 이미지는 최고 6천 여장까지 저장할 수 있다.

포토CD는 콤팩트디스크가 손상되지 않는한 거의 영구보관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다. 예컨대 인물사진 외에 멋진 풍광을 찍은 필름이 CD에 담겨 있다면 인물사진을 풍광을 배경으로 편집, 프린터로 출력해 낼 수 있으며 색상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

포토CD는 다양한 편집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활용범위도 다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언론매체들은 각종 기록사진들을 색상의 손상없이 수십년 이상 보관할 수 있다.

산업디자인 제작업체들은 각종 사진만 확보하면 편집여부에 따라 다양한 디자인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또 기업들이 설명회를 할때 오버헤드프로젝션(OHP)용으로 포토CD사진을 만들어 생생한 화면을 전달할 수도 있다.

한국코닥은 이미지의외에 74분정도의 음향 또는 3.5인치 플로피디스크 4백3장에 해당하는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콤팩트디스크도 국내에 공급

할 계획이다.

금성전선, 최첨단 광섬유 개발

-1.55μ급, 정보전송 왜곡·분산제거-

금성전선(대표 權炆久)이 국내 처음으로 1.55미크론 零分散 광섬유를 개발, 양산에 들어간다.

이회사는 2년간 10억원의 개발비를 들여 2.5기가비트급 이상의 초고속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광전송장비를 개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로써 기존 1.3미크론 광섬유에서 발생하는 전송정보의 왜곡과 분산현상을 막아 최대의 정보량을 짧은 시간에 전송할 수 있게 됐다.

이 광섬유는 정보통신에 대한 세계표준기구(ITU-T)의 모든 규정에 맞아 회사측은 관련 특허를 출원했고 실용화 실험까지 마친 상태이다.

이 광섬유를 사용한 옥외용 광케이블은 내년부터 선보인다.

효성중공업, 레이저 발진기 개발

효성중공업은 광섬유를 이용, 빔전송을 할 수 있는 레이저 발진기를 개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효성중공업이 개발한 레이저 발진기는 네오디뮴(Nd), 야크(YAG·이트륨알루미늄 가넷)등의 금속을 합금한 것이며 50W급 타원주반사경 자기소호형 전력용반도체 고전압전원장치 빔확대기 등의 핵심부문도 자체 개발됐다.

미국 쌍안경 시장규모 증가 추세

美國의 쌍안경시장은 연간 1억5천만弗 규모로 추정되고 있는데 스포츠, 레저인구의 증가로 수요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연간 약 5백만개가 판매되고 있는데 미국인들은 주로 야생조류 관찰, 사냥, 하이킹, 등산 그리고 경기관람용으로 쌍안경을 구입하고 있다.

쌍안경 구매자들이 다양하고 구체적인 취미활동으로 이들이 요구하는 제품의 기능과 디자인이 세분화됨에 따라 전문생산업체들은 이들 틈새시장에 대한 마케팅전략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다.

방수와 서리방지기능 외에 오토포커스, 오토줌 기능이 추가되고 밝기, 해상도, 선명도가 크게 개선되고 있는데 목표물의 온도, 거리, 방향 등을 추적할 수 있는 최첨단 제품도 개발되고 있다.

93년 미국의 쌍안경 수입은

1억3천1백만弗로 전년대비 27.2% 증가를 나타냈다. 최대 공급국은 일본으로 5천7백만弗로 전체수입의 44%를 점유했다.

중국과 홍콩은 각각 2천5백만弗, 1천2백만弗를 기록했으며 한국은 7백65만弗로 4위를 기록했다. 중국, 홍콩, 대만 등 아시아 국가의 수출업체들은 대부분 유명브랜드의 OEM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가격경쟁이 치열해 평균 수입가격은 계속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

아시아 경쟁국들보다 다소 높은 평균 단가 20弗대의 한국산은 품질개선과 틈새시장에 대한 제품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레저용품쇼, 사냥 및 스포츠용품 전시회, 광학기기 전문전시회 참가를 통해 기술개발동향과 현지 수요자가 요구하는 제품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월드컵 축구경기의 열기로 경기관람용 쌍안경 구매가 급증현상을 보인 점도 구매동기별 수요를 파악한 마케팅전략 수립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국내 복사기·팩시밀리 판매 신장세 보여

-7월 중 내수판매 전년동기 대비 40%신장 -

비수기인 지난 7월중 복사

장 권위있는 카메라부문 양대
 賞인 올해의 「유럽콤팩트카메
 라賞」과 「유럽최우수콤팩트카
 메라賞」수상제품으로 선정됐
 다고 밝혔다.

이는 국산카메라가 지난 20
 년동안 세계카메라시장을 지
 배해온 일본업체의 제품을 처
 음 누른 것으로 콤팩트카메라
 분야의 기술력이 일본제품과
 대등한 수준에 올랐음을 반영
 하고 있다.

「유럽콤팩트카메라賞」은 유
 럽지역 13개국 전문사진잡지
 협회(EISA)에서 지난 1년동
 안 출시된 카메라를 대상으로
 기술 기능디자인 가치 등을 중
 합평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
 은 제품에 수여되는 賞으로 지
 난 82년 신설됐다. 기술사진잡
 지협회(TIPA)에서 시상하는
 「유럽최우수콤팩트카메라賞」
 은 유럽지역 30개 사진잡지편
 집장들이 제품을 심사, 선정하
 는 것으로 지난 91년부터 시상
 돼 왔다.

이 두가지賞은 그동안 줄곧
 일본업체들이 차지해 왔으며
 일본 이외의 국가에서 상을 받
 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 한
 해에 두가지賞을 동시에 수상
 한 것은 일본펜탁스社의 「에스
 피오115」이후 처음이다.

삼성ECX-1카메라는 日本
 올림푸스(IS-100, OZ-280)
 와 펜탁스(에스피오928), 독일
 라이카(미니쥬)제품들과의 경



삼성항공은 최근 콤팩트 4배줌카메라인 ECX-1(국
 내 모델명 FX-4)이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있는 카
 메라부문 양대상인 올해의 「유럽콤팩트카메라상」과
 「유럽 최우수 콤팩트카메라상」 수상제품으로 선정
 됐다고 밝혔다.



합끝에 두가지 상을 모두 획득
 했다.

삼성항공은 이번 수상으로
 EISA와 TIPA에서 부여하는
 수상마크를 카메라에 부착할
 수 있어 일본업체들과의 판매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상식은 9월 22일부터 5일
 동안 독일뮌헨에서 열리는 세
 계적인 카메라전시회인 포토
 키나쇼에서 거행될 예정이다.

**삼성항공, 카메라사업
 국제화 적극 추진**

—중국, 멕시코, 유럽 등에
 현지공장설립 및 일본과 기
 술협력도 강화—

삼성항공이 카메라사업의
 국제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삼성항

공은 중국 北美 유럽동남아시
 아 등지에 현지공장을 설립,
 세계적인 생산망을 구축키로
 하는 한편 해외업체와의 기술
 교류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삼성항공은 지난7월에 中國
 天津카메라公司와 각각 5백만
 달러씩 투자한 연산 1백만대
 규모의 카메라생산공장을 완
 공하고 본격가동에 들어갔다.

이회사는 이공장에서 자동
 초점(AF)카메라를 생산, 중
 국시장판매 및 해외수출을 추
 진할 계획이다.

이회사는 또 북미자유무역
 협정(NAFTA)이 체결된 이
 후 북미시장진출을 위해 멕시
 코 현지생산공장설립을 추진
 중이다. 멕시코에 현지조사단
 을 파견, 카메라사업 투자여건
 을 조사하고 있으며 단독진출
 또는 현지 업체와의 합작 등을

삼성항공, 9월부터 삼성카메라 전 제품에 대한 무상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제품교환기준을 확대 하는 등 고객서비스 강화...

삼성항공은 이같은 내용의 고객 신권리 채택으로 연간 4억원 정도의 추가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추진중이다. 삼성항공은 멕시코 카메라부품산업이 빈약하다고 판단, 국내 부품업체들과의 공동진출도 검토하고 있다.

이회사는 또 베트남지역 현지 공장설립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유럽지역 진출도 모색하고 있다.

삼성항공은 이와함께 엔高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일본업체와의 기술협력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日本광학업체인 치논社로부터 SLR(一眼리플렉스)방식 브리지스타일 4배줌카메라(모델명 ZL-4)의 설계도와 개발기술 등을 인수, 고급기종카메라개발 기술을 확보했다. 이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고급기종인 SLR카메라 사업에 참여할 방침이다.

삼성항공은 또 zoom관련특허 기술을 보유하고있는 日本아

사히光學과 상호기술사용계약을 체결, 기술교류에 나서고있다. 이회사는 세계최고수준의 카메라업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외업체와의 기술교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기술크로스라이선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삼성항공, 카메라 고객 서비스 강화

—무상보증 2년으로 연장, 제품교환기준 확대—

삼성항공이 9월부터 삼성카메라 전제품에 대한 무상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제품교환기준을 확대하는 등 고객서비스를 강화한다.

삼성항공은 최근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카메라시장 개방에 대비하기위해 이같은 내용

의 고객新권리 선언을 했다.

삼성항공은 1년내 평균사용횟수가 3~4회에 불과한 카메라의 무상보증기간을 24시간 사용되는 가전제품과 동일하게 적용, 소비자들의 불만요인이 돼왔다면 무상보증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구입후 1개월내 증대한 고장이 발생할때 ▲보증기간내 동일한 고장이 4회째 발생할때 ▲보증기간내 동일한 고장이 4회째 발생할때 ▲보증기간내 수리가 불가능할 때 ▲구입후 6개월내 서비스를 받았으나 불만족스러울때에는 제품을 교환해주고 소비자가 타기종으로 교환을 요구할때에는 출고가 기준 교환차액만 받고 바꿔주기로 했다.

삼성항공은 이같은 내용의 고객新권리 채택으로 연간 4억원 정도의 추가비용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있다.

삼성항공, 직원전용 종합지원센터 운영

「구내전화 6530」.

삼성항공(대표李大遠)이 최근 사내에 설치한 종합지원(BS: Business Service)센터로 사원들이 이 번호를 누르기만 하면 업무 외적으로 겪는 애로사항에서 벗어날 수 있다.

기·팩시밀리 내수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가량 신장세를 보였다.

최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에 작년 동기대비 각각 30% 안팎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던 복사기·팩시밀리 내수판매가 비수기인 7월 들어서도 계속 늘어나 6월에 비해서는 10%정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 안팎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복사기의 경우 지난 7월중 판매대수는 7천4백 여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천3백 여대보다 39.6%가 늘어났고 지난 6월(6천5백여대)과 비교해 13.8%가 많이 팔렸다.

이같은 현상은 신도리코가 7월들어 잼자동제거복사기등 신제품 4개모델을 집중 출시한 것을 계기로 복사기 전문3사가 대대적인 판촉전을 벌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업체별로는 신도리코가 3천7백 여대를 팔아 시장점유율을 50% 선까지 끌어올렸으며 코리아제록스와 롯데캐논은 각각 1천6백 여대와 1천4백여대를 판매해 2위 다툼을 벌였다.

한국원자력연구소, 산업, 의료용 고출력 레이저 개발

산업용 및 의료용으로 활용

이 가능한 레이저가 개발됐다. 한국원자력연구소는 광섬유를 이용해 전송시킬 수 있는 고출력의 Nd(희금속원소)야그 레이저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레이저는 산업분야에서는 용접 절단등에 이용될 수 있으며 의료분야에서는 피부과 및 치과 등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원자력연구소측은 이 레이저를 마벨알프스의 서산공장에 설치 3천시간 이상 가동해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2대를 직업훈련원에서 레이저가공 교육훈련용으로 사용, 내구성 및 신뢰성을 확인받았다고 말했다.

원자력연구소는 또 이레이저를 의료분야에 이용할 경우 신체에 손상을 주지않으면서 지혈효과를 높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부품 종합 기술연구소, 2천년대 유망부품 선정

—광학부품으로는 기록재생용 광자기디스크, 광스위치, 광모뎀 등이 유망부품으로 선정—

기술성·시장성·수익성 등 업계의 현장감을 국내처음으로 실질 반영한 2천년대 전자·정보통신산업의 핵심유망부품이 선정됐다.

특히 향후 5~6년내에는 디스플레이 부문의 박막트랜지스터(TFT) 액정디스플레이(LCD), 센서부문의 적외선 센서, 고주파 부문의 전압제어 발진기(VCO)등이 크게 각광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전자부품종합기술연구원(KETI 소장 金定德)은 국내 전자·情報통신 관련 5백여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2000년대 전자·情報통신 핵심유망부품 전망」 설문조사를 실시, 10개부문 41개품목의 유망부품을 선정, 최근 발표했다.

이번 전자·情報통신 유망부품 선정작업은 部品研이 지난 3월부터 5개월간 방문조사를 통해 실제 생산업체들의 현실상황을 반영, 사업성·수익성을 크게 고려했다는 점에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10개 부품을 통틀어 TFT LCD가 전체 응답자의 76.6%의 호응을 받아 가장 유망한 부품으로 선정됐으며, 이어 적외선 센서(65.1%)·VCO(63.4%)·시스템 IC(61.1%)·다층 프린트 기관(60.0%)·표면탄성파다이시(59.8%)·위상동기루프·신시사이저(58.4%)·표면실장 칩저항기(57.9%)·표면실장 칩콘덴서(57.9%)·기록재생용 광자기디스크(57.5%)순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는 표면실장(SMD-

전자부품 종합기술연구소, 2천년대 유망 광학부품으로 기록재생용 광자기디스크, 광스위치, 광모뎀 등 선정.

분야의 경우 칩저항기등 5개 부품이 선정됐으며, 디스플레이 분야는 TFT LCD등 2개부품, 기능부품 분야는 유기감광체(OPC)드럼등 3개부품이 각각 유망부품으로 선정됐다.

이밖에도 유망부품으로 △光電분야=光스위치등 6개 부품 △자기/음향분야=고속 액츄에이터 및 기록재생용 광자기디스크 △고주파분야=표면탄성파(SAW)다이오드등 6개 부품 △반도체/집적회로분야=시스템 IC등 8개 부품 △光자기분야=光모뎀 등 3개 부품 △전지/전력분야=CD/DC컨버터등 4개 부품 △센서분야=적외선 센서와 고주파센서등 2개부품을 비롯, 총 41개 품목이 선정됐다.

部品研은 연구소 창립 3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8월 25일 서초구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이번 보고서를 토대로 한 「2000년대 전자·情報통신 핵심유망부품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삼성종합기술원, 적색 반도체레이저 개발

레이저프린터 고밀도광기록장치 의료기기 등의 핵심부품으로 쓰이는 적색 반도체레이저가 개발됐다.

최근 삼성종합기술원은 2종의 단일모드형(광출력 5밀리와트와 40밀리와트)과 1종의 다중모드형(광출력 4백밀리와트)적색 반도체레이저를 개발, 삼성전기를 통해 조립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밀리와트급 적색 반도체레이저는 레이저프린터나 바코드리더등에, 40밀리와트급 레이저는 비디오 CD(콤팩트디스크)플레이어등 고밀도 광기록장치에 활용되고 4백밀리와트급 레이저는 외과및 안과수술용 의료기기의 부품으로 사용될 수 있다.

다중양자우물구조를 갖는 단일모드형의 경우 한번의 유기화학증착법(MOCVD)에 의한 결정성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 결정성장공정을 외제의 3분의 1 수준으로 단순화시켜 수율을 높이도록 했다. 특히 40밀리와트급 적색 반도체레이저는 적외선 반도체 레이저를 사용중인 기존 레이저 디스크플레이어나 CD플레이어에 비해 광기록밀도를 1.5배정도 늘릴 수 있다.

삼성중기원은 이번 기술개

발과 관련, 50여건의 특허를 국내외에 출원중이라며 차세대 광기록장치에 사용될 청색 반도체레이저의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종합기술원, 차세대 광섬유 증폭장치 개발

차세대 光섬유 증폭장치(EDFA)가 개발됐다.

삼성종합기술원(대표 河聖漢)은 최근 三星전자와 공동으로 광통신 방식과 전송속도에 구애받지 않고 초고속(2.5Gbps 이상)으로 수천 km이상 장거리용 光전송에 적용할 수 있는 증폭기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광섬유 증폭장치는 특히 無중계거리를 2백 km이상 확장할 수 있어 중계기 설치가 어려운 지역의 중계가 가능하며 안정된 光전송을 위해 입력력단에 光아이솔레이터를 내장시켰고 양자전환 효율이 70% 이상 될 수 있도록 했다.

삼성종합기술원은 광섬유 증폭장치의 국산화로 연간 3천만 달러 상당의 수입대체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국산 光전송시스템 기기의 수출경쟁력을 크게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